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08호
2024.05.30.(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EU·원자재**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및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 회의 개최
- 미국·반도체** 美 상무부, 8·9차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발표
- 미국·통상** 美,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한 中 섬유 기업에 수입 금지 조치
- 중국·물류** 4월 중국발 미국向 컨테이너 운송량 증가율 미소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디지털** 美 상원, 인공지능 규제정책 수립 보고서 발표

원자재 뉴스 PLUS

- 비철금속** 美, 한국産 등 황동봉 반덤핑 조사에서 산업 피해 긍정 판결

II. 월간 공급망



[특별기고]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주요국 대응 동향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IV. 공급망 소식통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안내 ('24.6.12.(수))

202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합동 수출시장 설명회 소개 ('24.6.13.(목))

※ 제109호는 한 주 휴간 후 6.13.(목)에 발간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원자재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및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 회의 개최

5.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라 구성된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

*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4.3월 최종 채택
동 회의에서 5.23일부 발효된 핵심원자재법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략 프로젝트 신청서 공모* 개시를 발표

* '24.8.22일까지 1차 신청 마감일로, 향후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허가과 자금 접근성 제고 혜택 부여 예정

원자재 공동 구매 계획은 현재 집행위 논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EU 회원국 및 차기 의회에 제출될 예정

집행위는 '27.5.24일까지 전략·핵심 원자재 목록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후 3년마다 검토 목록을 업데이트

또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캐나다·칠레 등 역외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추진

핵심 키워드

핵심원자재법

공동 구매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05.23),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8호(24.05.2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미국, 반도체 美 상무부, 8·9차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발표

5.20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SKC 계열사 애플릭스*에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

* 주력분야는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으로, 美 조지아주 코빙턴에 생산 기반 소재

제조사를 제외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로, 현재 첨단 패키징 시장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번 투자로 미국 내 첨단반도체 공급망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앞서 5.13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폴라반도체에 1억 2,000만 달러(약 1,64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

핵심 키워드

반도체법

보조금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8호(24.05.23)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 통상 美,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한 中 섬유 기업에 수입 금지 조치

5.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정부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위반한 中 26개 섬유 업체를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보도

*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美 국토안보부(DHS)의 금번 조치로 '21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 이후 총 65개 업체가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등재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에 따라 신장産 관련 제품의 수입은 '22년부터 금지되었으며, 美 정부는 기업에 공급망 조사 및 내부통제를 촉구

한편 美 상원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위구르 강제노동에 연루된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

美 의원들은 폴리실리콘·알루미늄·PVC·레이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中 기업 및 신장産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아시아 지역 기업으로 금지 대상 확대 추진

핵심 키워드

강제노동

자동차

출처: 로이터통신('24.05.16), 연합뉴스('24.05.21) 등 언론보도 KOTRA 위싱턴무역관 종합

중국, 물류 4월 중국발 미국向 컨테이너 운송량 증가율 미소

5.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4월 아시아 지역의 미국向 컨테이너 운송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반면, 중국발 미국向 운송량 증가율은 2%에 그쳤다고 보도

* '24.4월 아시아 지역의 미국向 컨테이너 운송량은 약 153만 TEU로, 8개월 연속 증가세

같은 달 아시아 지역 미국向 컨테이너 운송량 2위인 한국이 전년 동월 대비 13%, 베트남이 33%, 일본이 40%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

중국의 미국向 해상운임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운송량 증가율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5월 2주차 상하이-미국 서해안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4,393달러, 동해안 컨테이너 운임은 5,562달러로 각각 4월 말 대비 22%, 19% 상승

금년 4월 중국의 對美 수출액은 418억 2,000만 달러(약 57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세 시현

핵심 키워드

물류

해상운임

출처: 닷케이중문망('24.05.21)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디지털 美 상원, 인공지능 규제정책 수립 보고서 발표

5.15일(현지시간) 美 상원 AI 실무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美 AI 규제정책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非국방 분야 AI 혁신을 위해 '26년까지 약 320억 달러 투자, ▲AI 연구 및 개발 촉진, ▲연방 인프라 구축, ▲반도체법 지원, ▲AI 개발 관련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조 등을 포함
- 美 에너지부·상무부·국립과학재단·국립표준기술연구소·국립보건원·항공우주국 등 다양한 기관과 부서의 범정부적 연구 및 개발 자금 지원 확대

AI 정책 로드맵 보고서 개요

개요

미국 내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우선순위 및 권고 사항*을 제언

* '23년 의회 교육 브리핑 및 150명 이상의 AI 전문가들과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권고

주 제	내 용
① 인공지능 혁신 강화 필요성 강조	AI 혁신 투자 지원 확대, 최첨단 AI 연구개발 자금 지원 증대 등
② 인공지능 법안 및 지침 개발·시행	윤리 지침 수립, 투명성 고려,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 등
③ 인공지능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전문 인력 이민 시스템 개선, AI 기술 지원을 위한 교육 등
④ 국가안보 핵심 분야	신형 AI 기술 채택 선도, 잠재적 안보 위협 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
⑤ 인공지능 개발 및 배포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고려, 개인정보 무단 사용 방지 입안 등
⑥ 개인정보보호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 확립, 연방 프레임워크 구축 등
⑦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	AI의 내재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발 촉진 등

향후 전망

로드맵의 우선순위는 기존 법률 시행 보장 및 신규 입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 제정 요구는 미미한 상황

-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제안한 세출 예산 320억 달러(약 43조 5,000억 원)를 요구하고 있어, AI 기술 규제를 위한 투자 비용 총당 우려 제기

5.21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AI 안전연구소 국제 네트워크 출범을 발표하고, 韓·日·英·캐나다·싱가포르 등 5개국 AI 안전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

디지털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7호(24.05.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비철금속 美, 한국産 등 황동봉 반덤핑 조사에서 산업 피해 긍정 판결

5.22일(현지시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韓 등 5개국* 황동봉(HS Code: 740721)에 대해 산업 피해 최종 긍정(Affirmative) 판결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ITC의 산업 피해 긍정 판결에 따라 美 상무부는 피소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황동봉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 예정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4주)

비철금속 | 구리 공급 부족 우려로 동 가격 ↑, 주요국 광산 생산 차질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5.3주	5.4주	전주비(%)
동	8,478	8,703	2.7	10,203	10,525	3.2
니켈	21,474	17,001	△20.8	19,394	20,526	5.8
아연	2,647	2,520	△4.8	2,937	3,038	3.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칠레 가뭄지속에 따른 용수 부족, 파나마 환경 문제에 따른 대형광산 폐쇄 결정 등 동 공급 부족 우려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니켈)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등에 따른 주요국 니켈 광산 생산 차질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철강 | 中 부동산 경기부양책 기조 지속에 따른 철광석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5.3주	5.4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8.71	△25.7	140.05	140.29	0.2
원료탄	295.71	291.82	△1.3	238.00	239.00	0.4
철광석	119.32	121.61	1.9	115.98	119.90	3.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부양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철광석 가격 상승세 시현

(유연탄) 中 석탄광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생산감소로 유연탄 가격 상승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4주)

희소금속 | 공급량 증가에 따른 탄산리튬 가격↓, 원료 비용 상승세로 페로망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4월	전년비(%)	5.3주	5.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0	△11.5	1,350	1,350	-
탄산리튬	35,697	14,434	△59.6	14,750	14,565	△1.3
수산화리튬	37,972	12,959	△65.9	13,451	13,323	△1.0
코발트 (U\$/lb)	17.82	17.02	△4.5	16.75	16.7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4,949	△16.7	289,900	283,900	△2.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552	△30.4	57,220	55,140	△3.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中 국가물자비축국(SRB)의 15,000톤 비축 논의로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유럽 코발트 금속가는 현물거래 활동이 감소하면서 전주 가격 유지
- ❏ (페로망간)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료비용 상승이 지속되며 전주 가격과 동일
-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 및 산화 네오디뮴의 수출가는 원료비용 감소 및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전주 대비 가격 하락

에너지 | 美 원유 재고 증가, 중동 정세 우려 완화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	5.3주	5.4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3.36	1.26	83.91	84.19	0.28
브렌트유	82.17	83.52	1.36	83.15	82.46	△0.69
WTI	77.60	78.85	1.25	79.01	78.38	△0.64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美 원유 재고 증가, ▲중동 정세 우려 완화 등으로 유가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러시아 석유시설 피격 지속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 등은 하락폭 제한
 - ➡ 美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5.17일 기준 주간 원유 재고는 4억 5,885만 배럴로, 2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182.5만 배럴 증가
 - ➡ OPEC+ 회의를 앞두고 Macquarie와 JP Morgan 분석가들은 현행 감산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

월간 공급망

◆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주요국 대응 동향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기업이 관련 생산 규모를 지속 확대함에 따라, 미국·EU 등에서 자국 시장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배경 및 경과

중국산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서구권 국가의 자국 시장 보호 정책 확대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

-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522만 대)은 전년 대비 57.4% 증가
- ▶ '22년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3%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512억 달러)를 기록

☐ 이에, 미국과 EU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자국 시장 유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 ▶ (미국) 美 재무장관은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관련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언급('23.11.14) /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리뷰 결과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 광물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24.5.14)
- ▶ (EU) EU 집행위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넘쳐 EU의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23.10.4.)했으며, 6월 초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2. 중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혁신 계획, ▲신시대 신에너지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실시 방안,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21-2035) 등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

☐ (14차 5개년 계획) 동 문건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분야의 중국 국내 장비 규모가 각각 3억 kW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해당 분야의 세계 선두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신시대 신에너지 질적 발전을 위한 실시 방안)** 중국 정부는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발전사업의 성장으로, 중국의 설비용량이 세계 최대 수준에 도달하여, 보조금 없이 보급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30년까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서 12억 kW 이상의 설비용량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이는 '20~30년간 풍력 및 태양광발전 설비를 연평균 0.69억 kW 증설해야 하는 수치(총 7.58억 kW)

☐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신에너지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체 신차 판매 중 신에너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25년까지 기존 20%에서 25%(연간 700만 대)로 상향

중국 에너지관리국에 따르면 '23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태양광 분야에 125조 원, 풍력 분야에 약 71조 원 투자

☐ 중국 에너지관리국은 '23년 전 세계 신설 재생에너지 용량(5억 1천만 kW) 중 50% 이상을 중국이 기여했다고 평가

➡ 특히 '23년 풍력 및 태양광 제품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어 누적 수출액이 각각 334억 달러(약 44조 6,000억 원), 2,453억 달러(약 327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

3.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동향

자국 시장에서 ▲보조금, ▲기술혁신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 확대될 전망

☐ **(제조 역량)**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기업의 생산 및 기술 역량은 세계 선두 수준

➡ **(태양광·풍력)**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8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의 85%를 차지할 전망,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세계 15대 풍력 터빈 회사 중 10개가 중국 회사이며, '22년 기준 글로벌 설치 용량의 56% 차지*

* Goldwind(세계 시장 점유율 13%), Envision(세계 시장 점유율 9%), Mingyang Smart Energy(세계 시장 점유율 7%) 등

➡ **(전기차)**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2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60% 비중

☐ **(수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품목의 '23년 1-3분기 수출 증가율은 41.7%를 기록하는 등 중국기업은 글로벌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

➡ **(태양광)** 중국태양광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태양광 관련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80.3% 증가하여 해당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512억 달러)를 기록

➡ **(전기차)**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3년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959만 대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4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550만 대로 증가 전망

- ☐ **(해외 투자)**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 ☞ **(태양광)** '23년 론지, JA솔라, 진코솔라, 캐나다솔라, 트리나솔라 등 중국 주요 태양광 업체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
 - ☞ **(전기차)**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BYD 인도네시아에 연 15만 대 규모 제조공장 설립 계획 / BYD, 장성 자동차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헝가리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 중
 - ☞ **(배터리)** CATL은 독일 배터리 공장 가동('23~)을 시작하였으며, '27년 완공 목표로 헝가리 공장 설립 추진 중(약 10조 3,000억 원 투자) /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포드와 합작하여 '26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 공장 건설을 진행 중
 - ☞ **(배터리 소재)** 중국의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전문업체 XTC New Energy Materials는 프랑스 원자력 그룹인 Orano와 배터리 소재 생산 관련 합작 투자 발표(REUTERS, '23.5.13)
 - ☞ 이외 중국기업은 IRA, 관세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
- * 中 국영 자동차 대기업 SAIC가 소유한 MG는 멕시코에 15억~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 / BYD는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FT, '23.12.17)

4. 미국과 EU의 대응 동향

미국, 최근 美 백악관·USTR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리뷰 결과를 발표

- ☐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 내용을 담은 결과를 최근 공개
- *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관련 품목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핵심 광물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신규 포함
 - ☞ 단, 시행 시기는 중국 외 지역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24년, '25년, '26년)

[표1] 주요 변경 사항

	품 목	시행 시기	관세율
기존 대상	배터리 부품(Battery parts, non lithium-ion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lithium-i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 n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6년	7.5%(현행) → 25%(변경)
	전기차(Electric vehicles)	'24년	25%(현행) → 100%(변경)
	태양광 전지(Solar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24년	25%(현행) → 50%(변경)
신규 추가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	'26년	0%(현행) → 25%(변경)
	기타 핵심 광물(Other critical minerals)	'24년	
	영구 자석(Permanent magnets)	'26년	

EU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를 부과할 전망

☐ (반보조금 조사)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시장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들고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23.9.13.)

- ➡ EU의 보조금 금지 규정인 (EU)2016/1037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 여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 특히,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특허 대출, 토지 제공 등 보조금 가능성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 (REUTERS, '23.9.14.)
- ➡ 현재 EU 집행위는 6월 초까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초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전망 (Politico, '23.5.22)

☐ (역외보조금 규정) 최근 EU집행위는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중국 태양광 업체 조사에 착수

- ➡ EU는 역외보조금 규정('23.7.12일 시행)을 통해 중국기업이 참여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컨소시엄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24.4.3)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중국기업은 입찰을 포기

5. 시사점

관세 등 對중국 견제 조치 회피, 신규 시장 확보 등을 위해 중국기업이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추진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업체와의 경쟁 확대 전망

☐ 中 기업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확대는 향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 확대 등 기존 진출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대응 조치(자체 무역구제 조사, WTO 제소 등)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중국의 대응 조치는 우리 기업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는 미국과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보조금 조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도 일부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 인상을 고려 중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SCMP, 24.5.22.)

참고 자료

Bloomberg(23.11.14), Yellen Says China's Support for Industries Poses Global 'Risk'
Bloomberg(23.12.20), China Pulls Punches to Keep Pricey Electric Cars Flowing to EU
Bloomberg(23.12.21), US Considering Hiking Tariffs on China EVs, Solar Products, WSJ Reports
Bloomberg(24.1.8.), Xi's Solution for China's Economy Risks Triggering New Trade War
CREA(24.1.25), Analysis : Clean energy was top driver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2023
Economist(24.1.11), Western firms are quaking as China's electric-car industry speeds up
Economist(24.1.11), An influx of Chinese cars is terrifying the West
Economist(24.1.9), Xi Jinping risks setting off another trade war
Bloomberg(24.1.12.), China's Exports Drop for First Time Since 2016 as Demand Cools
Financial Times(23.7.31), European car industry can withstand cheap Chinese EVs, Bruno Le Maire says
Financial Times(23.10.4), China's electric vehicles threaten to leave Europe in the dust
Reuters(23.11.21), Stellantis, CATL plan factory in Europe to make cheaper EV batteries
Reuters(23.5.13), Macron: China's XTC to invest 1.5 bln euros in JV with France's Orano in Dunkirk
Reuters(24.1.26), Tesla CEO Musk: Chinese EV firms will 'demolish' rivals without trade barriers
Reuters(24.1.22), China EV overcapacity fix would be a crowd pleaser
Reuters(24.1.26), Tesla CEO Musk: Chinese EV firms will 'demolish' rivals without trade barriers
SCMP(23.9.17.), How severe is the impact on Chinese EV makers after EU launches an anti-subsidy investigation
SCMP(24.5.22.), China considering car tariffs to retaliate against US and EU moves, trade group says

国家能源局(2021.11.29), 关于印发《“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的通知, 《“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4/03/content_5683361.htm
国务院办公厅(2022.5.14.), 国家能源局关于促进新时代新能源 高质量发展实施方案的通知,
《关于促进新时代新能源高质量发展的实施方案》,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2-05/30/content_5693013.htm
国务院办公厅(2020.10.20.), 《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2021—2035年)》,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0-11/02/content_5556716.htm
海南省绿色金融研究院(2021.7.13.), “碳中和目标下的投资机会-5大产业链与18个赛道

연합뉴스(24.1.21.), 인니 장관 "BYD, 1조 7천억원 투자해 15만대 제조공장 건설"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후 수입 변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미국은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 오고 있음

- ▶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수입품 대상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 규제(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 제한(FDPR) 등

이에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적극 진출하고 있음

- ▶ (베트남)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섬유·의복, 전자부품 생산·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 사례 다수
- ▶ (멕시코) USMCA, IRA 등 북미 역내 생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자동차, 기계류 기업 다수 진출

▶ 중국 기업의 베트남·멕시코 이전 사례

베트남	      
멕시코	      

자료: 언론보도 및 각사 홈페이지 종합

관세부과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하고, 대베트남·대멕시코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2017년 대비 2023년 미국의 301조 관세부과품목 對中수입은 27.2% 감소하고, 對中수입의존도는 7.5%p 하락
- ▶ 동기간 멕시코(+1,557억 달러, 수입액 증가 1위), 베트남(12.7%, 수입 연평균성장률 1위)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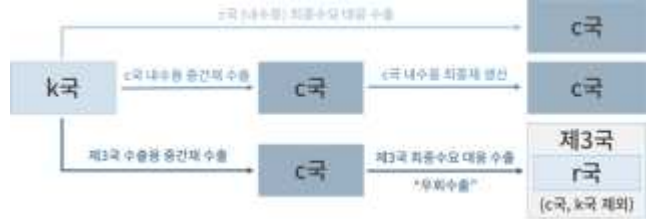
순위	국가	'17(A)		'23(B)		증감(B-A)		'17~'23 CAGR
		수입	비중	수입	비중	수입	비중	
1	멕시코	2,873	15.1	4,430	17.9	1,557	2.8	7.5
2	캐나다	2,526	13.3	3,960	16.0	1,433	2.7	7.8
3	중국	3,209	16.9	2,335	9.4	-874	-7.5	-5.2
4	한국	634	3.3	1,119	4.5	485	1.2	9.9
5	베트남	396	2.1	808	3.3	413	1.2	12.7

주: 순위는 2023년 수입 금액 기준
자료: USITC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미중분쟁을 거치며,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이용해온 것으로 분석됨

- 우회수출이란 특정 상품이 수입 규제 또는 관세 부과 대상인 경우, 제3국으로 해당 상품 또는 부품·요소를 수출하여 가공하고, 원산지를 변경한 후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 우회수출은 2012년 36억 달러에서 2022년 136억 달러로, 10년 만에 100억 달러 증가

- (베트남) 2019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경유지로 성장
 -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6억 달러에서 2019년 41억 달러로 급증
 -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산업별 대미국 우회수출은 중국 신장 지역 주력품목인 섬유(+6.1억 달러), 금속가공(+3.7억 달러), 전기광학장비(+3.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
- (멕시코) 2020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급증
 -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액은 2020년 79억 달러에서 2021년 105억 달러로 성장
 - 2015년 대비 2022년 산업별 우회수출 금액 증가세는 전기광학장비(+17.1억 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2억 달러), 운송장비(+7.6억 달러) 등 USMCA에 의해 역내생산요건이 강화된 품목에서 크게 나타남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경유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베트남	5.7	6.4	7.3	12.1	7.2	9.3	12.8	15.7	40.8	30.1	34.6	30.2
멕시코	29.8	29.6	31.5	34.6	33.7	42.5	66.3	53.0	81.7	79.2	105.1	105.5
소계	35.5	36.0	38.8	46.7	40.9	51.8	79.1	68.7	122.5	109.3	139.7	135.7

주: 보고서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ADB MRIO)을 이용한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석을 통해 중국의 우회수출 추이를 살펴보았음
자료: ADB MRIO 활용해 저자 작성

3. 시사점

- 현재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가 미국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미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미국 무역규범을 준수하는 신뢰 기반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공급망 소식통

◆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정부·기업들을 모시고 우리 비즈니스의 기회와 전망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 일 시 : '24.6.12.(수) 14:00~17:30
-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2F 크리스탈볼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 주 제 :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속 우리 비즈니스의 기회와 전망

☐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05)	📌 인사말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세션 1.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변화와 기회		
14:10~14:40('30)	📌 (기조연설)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 기회와 도전과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터티 부소장
14:40~15:30('50)	📌 (패널토론)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속 우리 비즈니스의 기회 * (좌장)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터티 부소장 마리아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5:30~15:50('20)	📌 커피 브레이크	-
세션 2. 신통상이슈별 분석 및 전망		
15:50~16:10('20)	📌 주요국의 최근 통상 정책 현황 및 대응 방안 - 공급망 및 디지털 이슈를 중심으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16:10~16:30('20)	📌 주요국 노동·환경-통상연계 규제 현황 및 시사점	KIEP 신통상전략팀장
16:30~17:20('50)	📌 (패널토론) 우리 기업의 신통상 규범 대응 사례 및 방향 * (좌장) 남은영 동국대학교 조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KIEP 신통상전략팀장 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 LG에너지솔루션 ESG상무 법무법인 세종 AI정책센터
무료 컨설팅관 운영		
13:30~17:30	📌 (KOTRA) FTA 활용 체험관 / 글로벌 공급망센터 / 수출 애로 119 (통관/인증) 📌 (협력기관) 생산성본부 ESG경영센터 / 한국능률협회 / 에코나인 (EU CBAM, CSDDD 등)	

☐ 사업 신청·문의

- 📌 신청 방법 : [「바로 가기」](#) 클릭 후 양식 작성하여 제출
- 📌 문의처 : KOTRA 통상협력팀 ☎ 02-3460-3317 / ✉ tpc@kotra.or.kr

202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합동 수출시장 설명회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1개국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와 세관, 관세법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수출 성공을 위한 수출시장 설명회 및 무료 기업 컨설팅을 준비하였사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4.6.13.(목) 13:00~17:45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2F 크리스탈볼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05('05)	개회사	KOTRA
13:05~13:10('05)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2024 주요국 수출시장 기회 및 수출 시 유의사항

13:10~15:10('120)	(공통) 주재국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기회요인 (국별) 주재국 진출 시 유의사항 (중국) 주요 인증 제도 (베트남) 관세 제도 동향 (인니) 사전 수입승인제도(PI) (인도) 수입인증제도(BIS) (태국) 산업표준원(TISI) 인증 (필리핀) 화장품 인증 및 등록절차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
15:10~15:20('10)	커피 브레이크	-
15:20~17:00('100)	(공통) 주재국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기회요인 (국별) 주재국 진출 시 유의사항 (칠레) 칠레 통관절차 (캄보디아) 비관세장벽 (호주) 식품 수입 규정 (일본) 수입통관 규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

FTA 활용 실무

17:00~17:15('15)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서울세관 세관장
17:15~17:45('30)	FTA 활용 공급망 구축 방안과 성공사례: 연결원산지 증명, 누적조항 활용 등	커스앤 관세사

기업 컨설팅 부스 운영

13:30~17:30	(대상) 사전 신청 기업(무료) / (상담시간) 5~10분 내외 (내용) 관세법인 및 컨설턴트가 국가별 맞춤형 상담 제공	관세법인,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
-------------	--	------------------------------

사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바로 가기\]](#) 클릭 후 양식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KOTRA 통상협력팀 ☎ 02-3460-3317 / ✉ tpc@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4.5.28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5/24	5/27	5/28	전일비	전년말비
₩/US\$	1,264.50	1,288.00	1,331.50	1,369.50	1,363.80	1,358.50	△0.39%	5.47%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67.30	1,361.70	1,356.20	△0.40%	5.39%
₩/CNY	181.44	181.37	185.10	187.91	188.82	187.41	△0.75%	3.33%
₩/¥100	945.56	912.25	888.91	871.90	869.71	866.22	△0.40%	△5.05%
¥/US\$	133.73	141.19	149.79	157.07	156.81	156.83	0.01%	11.08%
US\$/EUR€	1.0617	1.1105	1.0835	1.0814	1.0845	1.0876	0.29%	△2.06%
CNY/US\$	6.9630	7.1092	7.1938	7.2446	7.2449	7.2466	0.02%	1.93%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S\$) 1343.6원, (₩/¥100) 891.5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5/27	5/28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3.31	84.42	1.1	14.1	7.3
						1.3%	20.1%	9.5%
철광석		97.35(5.24일)	140.50	119.00	117.85	△1.2	20.5	△22.7
						△1.0%	21.1%	△16.1%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10,256.50 (5.24일)	10,331.00	74.5	2518.5	1855.0
						0.7%	32.2%	21.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99.00 (5.24일)	2,653.00	54.0	584.5	317.5
						2.1%	28.3%	13.6%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9,955.00 (5.24일)	20,065.00	110.0	4180.0	3765.0
						0.6%	26.3%	23.1%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5/23	5/24	5/27	5월(~2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2	1.92	1.91	1.93
(%, YoY)	29.9%	△23.0%	△14.8%	△3.6%	6.6%	24.8%	25.0%	25.0%	22.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9	6.39	6.38	6.39
(%, YoY)	14.7%	10.7%	△2.3%	△1.9%	△0.7%	0.0%	0.3%	0.4%	0.0%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5/10	5/17	5/24	전주비(5/17)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305.79	2520.76	2703.43	7.2%	53.6%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5/23	5/24	5/27	5/28	전주비(5/27)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796	1797	1797	1784	△0.7%	△14.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02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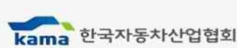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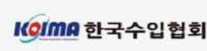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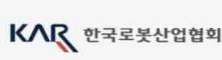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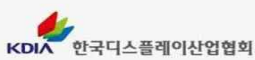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